

# ‘AI에 꽃힌’ 이재용 ‘신성장 엔진’ 연구·인재영입 가속페달

### 6개 글로벌 연구거점 구축, 유망 스타트업 잇따라 인수·투자 반도체·TV·스마트폰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 구체화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TV와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주력 엔진’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화두로 떠오른 AI를 낙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겨냥한 전략이다.

특히 이는 ‘새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제시한 새로운 좌표로, 이와 관련한 그의 글로벌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9일 발표한 미국 뉴욕 AI 연구센터는 6번째 ‘글로벌 AI 연구거점’이다.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센터 설립을

통해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동을 건 삼성전자는 올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5월 영국 케임브리지·캐나다 토론토·러시아 모스크바에 AI 연구센터를 잇따라 열었다.

이는 인수·합병(M&A), 인재 영입, 기술 투자 등이 주축인 ‘AI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휴대폰과 TV 사업의 수익성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반도체 부문도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 등으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AI 육성을 본격화함으로써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3~4년간 국내외에서 AI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16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랩스’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대화형 AI 서비스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인 ‘플런티’도 사들였다. 올들어서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 ‘넥스트Q 펀드’를 조성했고, AI 연구활동 등을 총괄하는 최고혁신책임자(CIO) 직책을 신설해 데이비드 은 삼성넥스트 사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말 삼성리서치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AI센터를 신설해 관련 선행 연구에 나선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삼성 글로벌 AI 포럼’에 이어 같은해 10월 국내에서 ‘삼성 AI 포럼’을 개최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의 AI 석학인 래리 핵 박사-앤드루 블

레이크 박사를 비롯해 AI 기반 감정인식 연구로 유명한 마야 팬틱 교수, AI 로봇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리 박사, 뇌 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 세바스찬 승 박사 등을 영입해 ‘아전 사령관’으로 투입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에도 AI 기술을 잇따라 적용하고 있다. ‘AI 비서’인 빅스비를 내세워 오는 2020년까지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AI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에 ‘빅스비’를 탑재했고, QLED TV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도 음성인식 기능이 채택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AI,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사업 가운데 일단 AI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내부 기술 개발과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인수 및 협력을 통해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불필요한 휴면계정 정리하세요

###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40대 주부 A씨는 최근 광고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았다. 해당 업체는 A씨의 황의전화에 A씨가 수년 전 업체 회원에 가입하면서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회원 탈퇴를 하려 했지만 동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 카카오톡, 구글코리아 등과 함께 A씨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 민간기업은 회원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정리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유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개인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 회원가입과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을 위한 본인

/연합뉴스

확인 내역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 회원 탈퇴를 원하면 탈퇴 신청과 처리 등도 지원해준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잡스 극장에 쏠리는 눈...새 아이폰 스펙·가격 ‘시선집중’

### 아이폰 XS맥스 가격 예측, 900달러 후반부터 1천100달러대까지 애플워치4에 디스플레이 강화...운동량 자동측정 워치OS5 탑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의 ‘빅 이벤트’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애플이 연례 이벤트가 열린다는 초정장을 발송한 12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 신제품 언팩(공개행사)이 이뤄진다.

8일 미 IT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3종의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는다.

역대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6.5인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대화면 아이폰 XS 맥스와 아이폰 X의 후속 모델인 5.8인치 아이폰 XS, 그리고 6.1인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모델이 팬들을 만난다.

애플은 아이폰 6 플러스 이후 지속해서 대화면 모델명에 붙여온 ‘플러스’를 버리는 대신 ‘맥스’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속 모델은 지난해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X와 마찬가지로 모두 페이스

ID(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자 모양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약점인 배터리 용량을 크게 늘렸다는 관측이다.

애플 전문가인 KGI 증권 애널리스트 귀밍치는 신형 아이폰이 ‘맥스’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512기가바이트(GB)의 스토리지(저장용량)를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삼성 갤럭시 노트 9는 기본 512GB에 같은 용량의 SD 카드를 덧붙이면 ‘꿈의 스토리지’로 불리는 1테라바이트(TB)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용량을 극대화했다.

아이폰이 수치로 표현되는 스펙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능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은 아이폰 X의 기본 틀을 유지하

기 때문에 파격적인 변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레이, 레드, 화이트, 블루, 오렌지에 골드까지 색상의 다양화를 추구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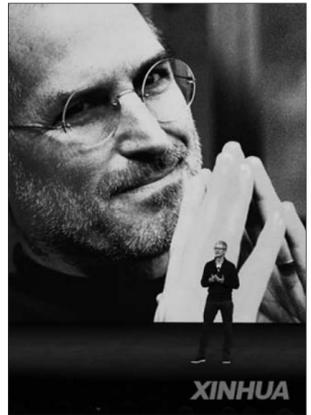
가격은 LCD 모델이 600달러 후반에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IT 매체에서는 보급형으로 나오는 LCD 모델조차도 740달러대 후반으로 정해졌다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아이폰 XS와 XS 맥스도 각각 800달러대 후반, 900달러대 후반이라는 관측과 함께 아이폰 XS 맥스 512GB 모델 가격이 1천199달러(약 134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말도 떠돈다.

애플은 지난 6월 연례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한 신 운영체제 iOS 12를 새 아이폰에서 시연한다.

애플은 이밖에 새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스티브 잡스 극장의 팀 록 애플 CEO

플워치 4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12.9인치와 좀 더 작은 11인치 모델로 선보일 아이패드 프로에는 아이폰 X처럼 물리적 홈버튼을 없애고 페이스 ID 기능을 장착하는 한편 옛지투엣지 디자인으로 화면 사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대화면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를 강화한 새로운 두 종의 애플워치 4를 내놓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발명 특허·과학 온라인 콘텐츠 ‘출동 특허청 검증단’ 공개 특허청 ‘수상한 녀석들’ 협업으로 국민 참여확산 기대

특허청이 국민의 발명 특허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 제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출동 특허청 검증단’ 첫 회분을 10일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소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 콘텐츠는 발명 특허, 과학, 실험을 융합한 실험 카메라 형식이며, 특허청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궁금증과 호기심을 특허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댓글로 올리면, 특허청 검증단이 실연이나 실험을 거친 뒤 전문가 인터뷰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방식이다.

지난 7월부터 접수된 검증요청 댓글은 모두 400여건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소리를 지르면 무서움이 줄어들까’, ‘눈을 감고 풀리와 사이클을 구분할 수 있을까’, ‘비 오는 날, 비를 덜 맞는 방법은’, ‘안약을 넣을 때 반드시 입을 벌려야 하는 이유’ 등이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수상한 녀석



들’은 선데이(이효준)와 영우(오석)가 출연하는 실험 카메라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구독자가 62만여명, 팬당 조회 수는 보통 100만을 넘는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호기심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궁금증을 통해 발명 특허에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출동 특허청 검증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jndomin.kr

#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T 062 227 0000 F 062 227 0084 www.jndomin.kr